# 도리사관의 한계와 극복

## -『구칸쇼(愚管抄)』의 역사관과 언어관-

**박은희***
87bara@hanmail.net

Contents

1. 서론
2. 본론
   1) 『구칸쇼』성립 배경과 사론의 탄생
   2) 도리사관과 명현(冥顯)의 이중구조
   3) 지엔의 말법사상과 백왕사상의 특징
   4) 지엔의 언어관 - 가나(假名)로 쓴 희언(戱言)
3. 결론

Abstract

本稿は慈円の道理史観の限界と言語観につい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愚管抄』は慈円という一個人が日本の歴史を顧み、歴史を貫く道理を省察した思索の記録である。慈円は歴史には大小軽重の数多くの道理があるという。慈円の主張によると、その道理のなかで一番大事な道理は天皇家の継続であり、摂関家と武家は天皇家を補佐する役割を果たす臣下の家柄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新しく登場した武家を天皇を補佐する臣下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点では進歩的な見解であるが、依然として天皇、摂関による政治を物語っている点では自分の出身という制約から自由ではないといえる。自分が理想とする政治体制を冥顯の二元論で説明してはいるが、すべてを摂関家の立場から合理化している限界がある。

一方、慈円は『愚管抄』を仮名で書いているが、今までの歴史書が漢文で書かれたことを考えると甚だ意味が大きい。もちろん『大鏡』や『栄華物語』のような歴史物語も仮名で書かれているが、慈円はその伝統を引き受けながらも、物語とは異なる自分の思想を日本語をもって伝えるという新しい形式を完成したといえる。しかもなぜ漢文ではなく日本語であるかについて自覚的であり、〈伝達性〉を重視し、仮名で書いた史論という新しい形式を完成したのである。

Key Words : 道理史観、冥と顯、末法思想、百王思想、仮名、戱言
A view of the history of Dori, Mei and Ken, The philosophy of degenerate age, Hyakuo ideology, Kana, A joke

*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강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1. 서론

중세 벽두에 쓰인『구칸쇼(愚管抄)』는 진무(神武) 천황 이래 일본 역사를 통사적으로 기록한 사론(史論)이다. 그 난해한 문장과 사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세 역사, 사회, 문학 연구자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구로다 도시오(黒田俊雄)는『구칸쇼』연구사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선행 연구가『구칸쇼』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1]. 첫 번째는 사론, 즉 역사철학서로 접근하는 입장이며, 두 번째는 중세 몰락해 가는 귀족들의 계급의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 세 번째는『구칸쇼』서술에 보이는 문학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구로다 도시오의 지적처럼『구칸쇼』는 연구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열려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 문학 연구자, 특히『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전공자에게『구칸쇼』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주요 서적 중 하나이다. 두 작품에는 공통 본문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흡사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어 서로의 영향관계, 또는 선후관계는 학계의 주요 쟁점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세 문학 연구자들이 애용했던 연구 방법은『헤이케모노가타리』를 중심에 놓고『구칸쇼』를 보조 자료로 사용하며 군데군데 편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 비교하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방식은『구칸쇼』를 온전한 하나의 텍스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헤이케모노가타리』연구의 보조 자료로서가 아니라 중세를 대변하는 역사서로『구칸쇼』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세 초기의 격변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료『구칸쇼』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지엔(慈円)이 살았던 시대, 즉 고대에서 중세로의 변혁기라는 시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역사, 사상, 문학 등『구칸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적인 언술이 동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구칸쇼』의 저자 지엔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민하고 사색한 인

1) 黒田俊雄『王法と仏法』法蔵館, 2001, p.3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막부 성립과정은 물론 막부와 조정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는가 하면, 말법사상, 백왕사상과 같은 당시 유행하던 사상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엔의 사상과 역사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더불어 그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 계급적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도리(道理) 사관의 특징과 그 시대적, 계급적 한계를 살펴본 뒤 새로운 관점으로 그동안 간과되었던『구칸쇼』의 언어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구칸쇼』는 일본어로 쓰인 사론이다. 중세 문학 전공자로서『구칸쇼』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관심을 가장 강하게 끌었던 것은 지엔의 자국어에 대한 자각이었다. 지엔 자신의 자국어관, 즉 일본어에 대한 의견에 귀기울이고 일본어로 쓰인 사론으로서『구칸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천착할 때『구칸쇼』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2)]

## 2. 본론

### 1)『구칸쇼』성립 배경과 사론의 탄생

『구칸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구칸쇼』의 저자 지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엔(1155~1225)은 헤이안(平安) 말기에서 가마쿠라(鎌倉) 초기에 활동한 승려이자 정치가로 불교계의 정점인 천태좌주(天台座主)를 네 번이나 역임한 고승이다. 문학사적으로 보았을 때『신고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에 91편의 와카(和歌)가 실린 뛰어난 가인(歌人)이며 사론『구칸쇼』의 저자이기도 하다. 지엔의 이름이『구칸쇼』의 저자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50년 정도 전, 즉 극히 최근의 일이며 그 전에는 가인, 불교계 고승으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다[3)].

지엔은 섭관가(摂関家) 출신으로 당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구조케(九条

2) 텍스트는 번역본『구칸쇼』(박은희 외, ,세창출판사, 2013년)를 사용하고자 한다.
3) 大隈和雄『愚管抄を読む』講談社, 1999, p.8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家) 출신이다. 지엔의 동복(同腹) 형은 후지와라노 가네자네(藤原兼実)이며 가마쿠라 막부와 조정의 중재역을 담당하던 인물로 가마쿠라 초기 정치사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다. 지엔은 불교계 거물일 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형 가네자네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지엔은 승려일 뿐만 아니라 가인이며, 정치가였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지엔은『구칸쇼』에서 자신을 제3의 인물인 듯 객관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천태좌주 승정 지엔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가네자네의 동생이었다. 믿기지는 않는 일이지만 진정한 가인(歌人)이었으며 섭정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고토바인(後鳥羽院)도 와카(和歌) 연회에는 반드시 동석하라는 기색이었기에 항상 참석하였다. 그는 고토바인의 호지승(護持僧)으로 고토바인은 예전부터 비견할 이 없을 정도로 그를 의지했다고 사람들은 전한다.[4)]

인용문을 보면 지엔의 자화상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엔의 이미지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천태좌주 승정이라는 높은 지위, 섭관가 자제라는 신분상의 특징, 고토바인이 와카 연회를 베풀 때면 늘 초빙되었다는 가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엿보이는 구절이다. 고토바인은 지엔을 사이교(西行)에 버금가는 가인이라 칭찬했다고 전해진다. '진정한 가인'이라는 표현에서 가인으로서의 지엔 자신의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유배지에서도 와카집 편집에 전념했던 와카 마니아인 고토바인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가인으로서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최근까지도 지엔에게 가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은 이와 같은 당대 가인으로서의 활약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가인 지엔의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구칸쇼』의 저자로서의 지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구칸쇼』라는 독특한 텍스트는 그의 삶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즉『구칸쇼』는 섭관가 출신으로 불교계의 거장이 되어 천태좌주, 고토바인의 호지승을 역임하며 가마쿠라 막부와 조정을 잇는 다리 역

4) 텍스트 p.38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할을 수행했던 그의 삶을 상징하는 텍스트인 것이다. 지엔은 정치권력의 중심에 서서 형 가네자네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며 자기 집안을 위해 정치가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실각을 경험하여 쓸쓸한 노년을 보내기도 하였다. 정치적 부침(浮沈)을 모두 경험한 뒤 그 동안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 암중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사색의 결과로 본고의 텍스트인 『구칸쇼』가 탄생한 것이다.

『구칸쇼』는 문학사에서 사론으로 분류된다. 역사에 대해 논한 책이라는 의미의 사론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일본 문학사에서도 중세에 잠깐 보이는 용어이다.[5] 역사서는 『구칸쇼』 이전에도 많이 존재했다. 그러나 조정에서 엮은 관찬(官撰) 역사서는 이미 형해화된 사실을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모노가타리(物語) 풍의 역사서 역시 과거의 영화(榮華)에 대한 추억에 젖어 있을 뿐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였다[6]. 중세 전란으로 점철된 시기를 경험한 지식인들은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불교나 신도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시도했는데 『구칸쇼』를 비롯한 사론들이 이에 해당한다. 『구칸쇼』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엔의 역사 성찰 기록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그 성찰은 과거를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역사서와는 달리 한 개인의 확고한 정치적, 신앙적 신념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 역사를 자신만의 사관으로 해석,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칸쇼』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를 나아가야 할 바를 찾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점에 있다.

『구칸쇼』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구칸쇼』는 전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권과 2권은 황제 연대기로 진무(神武) 천황 이래의 역사가 연대기 형식으로 약술되어 있어 기존의 관선 역사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3권에서 6권까지는 도리를 중심으로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오카가미(大鏡)』과 같은 가가미(鏡)류의

5) 사론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책으로 『구칸쇼』와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가 이에 속한다. 『구칸쇼』는 불교적 입장에서 진무 천황 이후의 역사를 논하고 있다면 『신황정통기』는 신도(神道)의 입장에서 일본 역사를 논하고 남조의 정통성을 논하고 있다.

6) 坂本太郎『日本の修史と史学』至文堂, 1991年, p.8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느낌이 강하게 든다. 7권은 도리 사관의 총론으로 『구칸쇼』저술의 궁극적인 의도, 미래 정치를 위한 시무책 등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7권은 지나간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는 해석에 중점이 놓여져 있으며 지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론이라는 장르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에서도 지엔의 도리 사관, 언어관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7권을 중요한 분석 자료로서 사용할 것이다.

### 2) 도리사관과 명현(冥顯)의 이중구조

앞서 언급하였듯이 역사서 계보에 있어서 『구칸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역사의식을 통해 역사를 추체험하며 기록하는 형식, 즉 사론이라는 형식이었다. 기존의 역사서가 국가적 사업으로 관리들의 손에 의해 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인의 의미는 훨씬 크게 와 닿을 것이다. 지엔은 확고한 자신만의 집필의도를 가지고 『구칸쇼』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책을 썼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구칸쇼』 곳곳에 밝히고 있다.

>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세상의 도리(道理)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새벽녘 잠깬 늙은이의 소일거리로 삼는 사이 마침내 인생도 황혼에 접어들려 하고 있다. 세상사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에 예로부터 변해온 세상의 도리 또한 마음에 절절히 와 닿는다.(중략)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스러지게 된 일련의 도리를 늘 알리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도리에 맞다고 여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고 도리를 저버리려는 마음만 가지니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 글을 쓴다.[7]

인용문은 3권 첫머리를 장식하는 모두(冒頭)이다. 1권과 2권의 연대기는 나중에 추가로 덧붙여 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위 인용문은 『구칸쇼』를 시작하는 사실상의 첫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엔은 밑줄 부분을 통해 『구칸쇼』 저술의도를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미 노경(老境)에 접어든 자신이 깨달은 진리, 세

7) 텍스트, p.18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의 도리를 밝히고 싶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엔이 모든 세상 이치가 도리에 맞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언뜻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건이라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역사의 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엔의 역사를 보는 시선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는 지엔이 살았던 시대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혼란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소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란이 끊이지 않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정국, 천재지변 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가 도리에 맞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면면히 역사의 저변을 흘러왔던, 앞으로도 흘러갈 역사의 도리를 밝히는 것이『구칸쇼』창작 목적이라는 것이다.

도리는 지엔이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단어이다. 그는 도리에 비추어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의 사관을 도리사관이라 명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8] 지엔이 말하는 도리의 개념은 그리 명쾌하지도 자명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 개념을 파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엔 자신이 언급하고 있듯이 도리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도리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도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내용은 다양하다. 이 크고 작은 다양한 도리들은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가는가 하면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도리에는 경중이 있어 큰 도리를 위해 작은 도리가 희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엔이 생각한 가장 크고 중요한 도리는 무엇일까? 그 문제의 해결을 그의 역사 구분을 통해 살펴보자. 지엔은 일본 역사를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물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다소 중첩되는 시기도 있으나 이를 통해 그의 역사 이해의 단초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다소 길지만 인용하고자 한다. 7권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무(神武) 천황부터 세이무(成務) 천황 : 13대 846년. 명현(冥顯)이 화합하는 시기. 황자에서 황자로 이어짐.

② 주아이(仲哀) 천황에서 긴메이(欽明) 천황 : 17대 394년. 성군도 폭군도 존

8) 黒田俊雄, 전게서, p.4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재. 현계(顯界) 사람은 명(冥)의 도리를 이해 못하고 선이 선으로 통하지 않고 악이 악으로 통하지 않음을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시기.

③ 비다쓰(敏達) 천황부터 간무(桓武) 천황 : 21대 236년. 쇼토쿠(聖德) 태자가 섭정이 되며 불법(佛法)으로써 왕법(王法)을 수호하는 시기. 이 시기에는 현계에서는 도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허용하지만 명계(冥界)의 신불(神佛)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도리가 통한 시대는 비다쓰 천황에서 고이치조(後一條) 천황,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시대까지이다.

④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생각을 돌이켜 하던 일을 멈추는 도리로 말세 사람들이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도리이다. 이와 같은 도리가 통한 시대는 후지와라노 요리미치(藤原賴通)에서 도바(鳥羽) 상황까지이다.

⑤ 애초부터 그 의견이 양편으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논쟁하고 흔들려가지만 유일한 도리가 승리를 이루는 시기로 이 도리가 통한 시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 시대까지이다.

⑥ 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로 무도(無道)를 도리라 획책하고 그릇된 일이 도리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도리다. 이 도리가 통한 시대는 고시라카와(後白河) 천황 때부터 그가 상황으로 물러났을 무렵까지이다.

⑦ 일을 획책함에 있어 전혀 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맞닥뜨리는 대로 따라가며 뒤돌아보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현세의 도리다.

위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명현(冥顯)이라는 용어일 것이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현(顯), 즉 현실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 너머에 신과 귀신들이 존재하는 세계는 명(冥)이 된다. 명과 현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면에서 상호관계적인 세계이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명(冥)에 속한 신, 불(佛), 귀신, 원령, 덴구(天狗)들 즉, 영적 존재들의 작용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거꾸로 현계에 존재했던 인간이 귀신이나, 덴구, 원령이 되어 명계로 이동하여 다시 인간들이 사는 현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명과 현의 이원론적 사고는 지엔만의 특수한 사상은 아니다. 인간과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와의 길항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다. 다만 지엔의 경우 모든 역사적 사건을 인간과 신, 또는 귀신들의 길항으로 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명과 현의 틀에 맞추어 세세히 분석, 의미를 부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신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 역사를 이끌어갈까? 지엔은 이세(伊勢) 대신궁, 가시마(鹿島) 대명신, 가스가(春日) 대명신, 그리고 하치만(八幡) 대보살이 엄격히 의논하고 결정하여 세상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세 대신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천황가의 조상신을 의미한다. 가시마 대명신과 가스가 대명신은 후지와라(藤原)씨를 보호하는 신들이다. 그리고 신불습합을 엿볼 수 있는 하치만 대보살 역시 천황가를 수호하는 신이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신들이 등장하지만 일본역사를 좌우하는 주된 신은 어디까지나 천황가와 섭관가를 수호하는 신들이다. 지엔은 철저하게 천황가와 섭관가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지엔 역시 섭관가 출신이라는 자신의 출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명과 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시기는 신과 인간, 바꾸어 말하면 명과 현이 서로 소통했던 시기로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이상적인 시기의 특징으로 황통이 자연스럽게 왕에서 왕자로 이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엔의 첫 번째 관심사가 황통의 지속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기로 접어들면서 이미 인간들은 명계(冥界)의 도리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명과 현 사이에는 균열과 불통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균열을 보완하기 위해 불교가 도래했으며 이후 불교는 왕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치에 있어 불교의 강조는 물론 지엔이 승려였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엔 자신이 승려이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지엔만의 생각은 아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왕법불법상의(王法佛法相依) 사상[9]이 만연해 있었으며 그 영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신들이, 혹은 불법이 수호하고 싶었

9) 왕법 즉 천황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가 불법, 즉 부처님의 가호가 있어야 원만히 이루어지며 왕법의 비호아래 불교가 흥한다는 논리로 통치에 있어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고대 말 중세 초에 자주 보이는 용어로 실제로 이와 같았다고 하기 보다는 불교계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설파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던 왕법의 가장 주요한 핵심은 천황가의 존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엔은 중국황실과 일본 천황가를 비교하며 그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중국 황실의 경우 군주가 될 사람에게 중요한 것으로 기량 하나만을 드니 기량이 몹시 뛰어나다는 점만으로 국왕이 되는 것이라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본국은 처음부터 군주의 혈통이 바뀐 적이 없으며 신하의 가문 또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다.[10]

중국은 군주의 기량이 중요하며 기량이 뛰어난 자가 군주가 되지만 일본의 경우 혈통에 의해 천황이 유지, 존속되었다는 것이다. 지엔은 일본에서의 소위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혈통에 고집하다 보니 앞서 보았던 것처럼 왕에서 왕자로 자연스럽게 황통이 계승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첫 번째 시기의 특징으로 꼽게 된 것이다. 섭관체제 하에서 나이 어린 군주가 보위에 오르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나이가 어리다고 꺼린다면 천황가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명의 후보가 있으면 기량을 따져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천황의 기량보다도 더 중요한 도리는 천황가의 혈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엔은 일본 역사상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른 적은 없다고 단언한다.

혈통은 군주뿐만이 아니라 신하의 가문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 일본국에는 황족 출신이 아닌 자를 국왕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법도가 신대(神代)부터 정해져 내려온다. (중략) 이세 대신궁과 하치만 대보살의 가르침에 의하면 후견인이 되는 신하와 군주 사이에는 경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야 하니 어수합체(魚水合體)의 예(禮)라는 것을 정해 두었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가는 오직 이것에 달려 있다. 그 먼 옛날 아마테라스오카미(天照太神)의 "궐에 있으면서 잘 지켜주시오"라는 하명을 아마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根命)[11]가 받아들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할 도리가 있었기에 후지와라 가문의 삼공

10) 텍스트, p.450
11) 후지와라(藤原)씨의 선조신(先祖神).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三功)이 생겨났다.[12]

각자의 혈통으로 이어진 천황가와 섭관가의 협조야말로 지엔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자 도리사관의 골간이다. 『구칸쇼』는 일본 신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역사책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천황가와 섭관가의 조상신을 강조하고 있다. 천황가와 섭관가의 협조는 그야말로 신들이 살던 신화 시대부터 내려오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다. 신화 속에 나오는 두 조상신의 약속, 즉 어수합체의 예는 『구칸쇼』안에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강조된다.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도리가 상충되어도 천황가와 섭관가의 협력이라는 도리는 변하지 않는 대원칙으로 역사 속에서 면면히 살아 숨쉰다는 것이 지엔의 생각이었다.

천황가와 섭관가의 공조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지엔의 도리사관은 다분히 작의적이며 주관적이라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객관적인 잣대여야 하는 도리라는 관념 안에 이미 섭관가 출신으로서의 주관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엔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구칸쇼』의 한계를 의미한다.

### 3) 지엔의 말법사상과 백왕사상의 특징

앞서 살펴보았던 지엔의 일곱 단계 역사관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진무 천황에서 세이무 천황까지는 명현이 서로 화합한 조화로운 시기였지만 그 이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소통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인간들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무도(無道)를 도리라 주장하며 시류에 따라 되는 대로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이 스러지고 있다는 인식은 당시 유행했던 종말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13]. 지엔이 살았던 시대는 종말론이 유행했던 시기이다. 불교의 말법(末法)사상을 비롯하여 백왕(百王)사상[14]과 같은 종말론은 전쟁과 기근, 천재

12) 텍스트, pp.431-432

13) 小峯和明『中世日本の予言書ー〈未来記〉を読む』(岩波書店、2007)는 중세 일본에서 유행했던 종말론과 미래기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어 참고하기에 좋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지변을 배경으로 민심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불안한 정국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조차 불안에 떨게 했다. 지엔 역시 이와 같은 사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말법사상은 부처님 열반후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속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삼시설(三時說)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각각 500년, 1000년, 1만년이라 한다. 당시 계산법에 따르면 에이쇼(永承) 7년(1052) 세상은 말법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고 말법사상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지엔 역시 『구칸쇼』 여기저기에서 말법, 말세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만 삼시설에 의거한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말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엔의 말법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닌 일본 역사를 통찰한 결과 얻어진 인식이다.

백왕사상을 거론하고 말법을 이야기하지만 지엔은 세상이 끝난다는 종말론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백왕사상에 대한 그의 설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백 첩(帖)[15]의 종이를 준비해 두고 조금씩 사용하다보니 어느새 한두 첩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이번에 종이를 더할 때에는 90첩을 보충하여 사용하고 이것을 거의 다 사용하여 보충할 때에는 80첩을 더하는 식이다. 지나치게 쇠퇴한 후 다시 흥하게 하는 것은 종이가 한 첩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한 첩이 10장밖에 남지 않아 94, 5첩을 보충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몹시 쇠한 후에 특히 잘 부흥하는 비유는 위와 같다. 또는 종이를 보충하여 7, 80첩 정도 마련하여 사용하는데 아직 다 쓴 것은 아니지만 6, 70첩을 써서 이제 1, 20첩 남아 있는데도 4, 50첩을 마련했다고 하자. 이는 아주 쇠해 버리기 전에 대단히 좋지는 않아도 꽤 좋은 모습으로 바꾼 것에 비유할 수 있다.[16]

14) 천황이 백 번째를 끝으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상으로 종말론의 일종이다. 중세초 겐지(源氏)와 헤이케(平家)의 싸움에서 결국 바다에 몸을 던졌던 안토쿠(安德) 천황은 84대 천황으로 앞으로 남은 천황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불안의식이 당시 만연해 있었다.

15) 종이나 김 등을 세는 단위. 미노(美濃) 종이는 48장, 한시(半紙)는 20장, 휴지는 100장, 김은 10장을 이른다.

16) 텍스트, pp.205-20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의 인용의 포인트는 종이 백 첩을 유한하게 정해진 숫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보충 가능한 숫자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백 첩을 유한하게 규정된 숫자 백으로 보면, 백 번째 천황 이후는 종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첩, 그것도 10장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도 94, 5첩을 보완하면 다시 부흥하게 되고 역사의 흐름은 흥하는 쪽으로 급선회한다는 것이다. 종이가 떨어져 영이 되기 전에 새로운 종이를 공급함으로써, 즉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세상은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엔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백왕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고자 했다. 역사의 흐름은 달이 차면 이지러지고 이지러지면 다시 차오르듯 흥하는 기운과 쇠하는 기운이 서로 번갈아가며 찾아온다는 것이다. 물론 지엔이 살았던 시대는 전체적으로 쇠하는 기운이 강하여 말세라 여겨지는 시기이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겪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전란은 일본의 기운이 다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며 말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절명하기 직전의 순간이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엔은 자신이 살았던 시기를 거의 쇠하여 가던 세상이 다시 일어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다. 즉 처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홀로 부흥을 꿈꾸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엔의 관점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러지는 역사의 기운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지엔의 비유를 빌리자면 새로운 종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답은 앞서 언급했던 명(冥)의 가호, 즉 신불의 가호에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지나온 역사를 성찰하여 신불의 뜻을 읽어내고 이에 맞추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형태는 일본을 수호하는 신들의 뜻에 따라 천황 친정에서 섭관정치로, 원정(院政)으로 바뀌어갔다. 또한 각각의 정치 형태에 맞게 천황의 수명이 조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불의 가호로 섭관가에 뛰어난 인재들이 태어나 천황을 보좌하게 했다. 즉 구체적인 정치 형태는 신불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엔이 보기에 역사는 이제 무가(武家)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역사를 부흥하게 할 새로운 기운은 무사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엔은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 사실을 간파하고 무사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가장 중요하다고『구칸쇼』곳곳에서 역설하고 있다.

> 무사는 지금과 같은 말세에 꼭 있어야 할 존재이다. 무사가 반드시 필요한 말세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작금의 무사의 존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무사의 존재를 탐탁하지 않게 여긴들 이보다 나은 집단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17)

지엔은 무사 등장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무사를 멸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듯, 당시 고토바인은 막부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었다. 지엔은 막부를 없애려는 고토바인의 생각을 종묘사직을 지키는 신불의 뜻을 알지 못하는 위험한 생각이라 일축하고 있다. 무사의 힘은 호겐(保元)의 난을 필두로 가마쿠라(鎌倉) 막부 성립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섭관가 출신 장군의 등장을 통해 지엔은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직감하였던 것이다.

> 섭관가 출신의 장군이 나온 것은 하치만 대보살의 계획이다. 하치만 대보살이 문무를 겸하여 위세가 있으며 나라를 지키고 군왕을 수호할 섭관가 출신 장군을 점지하여 나라와 백성, 군주를 위해 내놓았다는 사실을 고토바 상황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점이야말로 중요하다.(중략) 섭관가 출신 장군은 모반하려는 마음이 없으며 게다가 세력이 강하니 그로 하여금 군주를 돌보게 하려 함이다. 군주는 하치만 대보살의 이와 같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18)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実朝) 암살뒤 막부측은 황족 출신 장군을 원했지만 고토바인의 반대로 무산되어 결국 구조 미치이에(九条道家)의 아들 요리쓰네(頼経)를 장군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후지와라 출신 장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지엔은 두 살배기 요리쓰네에게서 스러지는 역사의 기운을 되돌리기 위한 하치만 대보살의 계획을 본 것이다. 요리쓰네가 장군이 된 것은 문무겸행한 이가 세상을 보살피고 군주를 보필해야 한다는 신의 뜻이라고 부언하고 있다. 섭관가 출신 장군은 장군으로서 무력(武力)을 지니고 있지만 섭관가 출신이라 이

17) 텍스트, p.445
18) 텍스트, p.44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의 무사들과 달리 모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군주를 온전히 보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엔은『구칸쇼』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현 동궁과 장군, 즉 앞서 언급한 요리쓰네와 두 살배기 주교(仲恭) 천황을 꼽고 있다. 막부와 조정의 두 지도자가 성장한 뒤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도리를 깨달아 스러져 가는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는 무사 즉 막부 등장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막부와 조정이 조화롭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며 이 두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물론 이 두 세력의 협조를 위해서는 섭관가의 공조가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엔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천황가와 섭관가, 그리고 무가의 공조체제이다.

섭관가의 강조는 지엔이 자신의 출신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도리사관의 중심을 이루는 도리가 상당 부분 작위적이며 의도적으로 섭관가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말법사상 특유의 숙명론에서 벗어나 바른 정치, 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역설함으로써 말법사상과는 다른 보다 긍정적인 새로운 역사관을 낳았다는 면에서『구칸쇼』는 중세 역사철학을 대표하는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절에서는『구칸쇼』의 언어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4) 지엔의 언어관 – 가나(假名)로 쓴 희언(戱言)

지엔은『구칸쇼』7권에서 당대 지식인들이 학문을 게을리 한다고 개탄하며 지식인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다음과 같은 책을 들고 있다. 중국 서적으로는 13경과『삼사(三史)』『팔대사(八代史)』『문선(文選)』『백씨문집(白氏文集)』『정관정요(貞觀政要)』, 일본 서적으로는『일본기(日本記)』『속일본기(續日本記)』『일본후기(日本後記)』『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몬토쿠실록(文德實錄)』『삼대실록(三代實錄)』그리고 엔기(延喜) 격식(格式)을 비롯한 각 격식들, 그리고 일체경(一體經)을 필두로 모든 불경을 들고 있다. 아울러『구칸쇼』가 의미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서적 뿐 아니라 각종 유계(遺誡)와 고승들이 발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책들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 혹여 만에 하나 이를 알아채고 '이건 정말 너무하군. 원문을 좀 봐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이가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지금 열거한 불교 경전과 한적(漢籍) 들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중략) 만약 이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서책에 흘러넘치는 의미를 깨달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본서가 뜻하는 바를 이해할 것이다. 섣불리 파고들어 본서의 도리를 깨달을 자는 필경 없을 것이다.[19]

지엔은 앞서 열거한 수많은 중국과 일본 서적을 읽고 그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자여야만이 『구칸쇼』가 의미하는 바를 진정 이해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구칸쇼』가 서술하는 내용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교와 불교와 같은 외래 사상은 물론이고 이전의 일본 역사서를 모두 통달하고서야 『구칸쇼』의 진가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시나 원전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바라는 바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견식에 대한, 그리고 『구칸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구절이다.

그런데 지엔의 추천도서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엔은 일본어, 즉 가나(仮名) 로 『구칸쇼』를 집필하였다. 당시 한문과 가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대단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가나의 힘이 세어져 각종 모노가타리(物語)와 와카(和歌)가 가나로 쓰였다고는 하나 공식적인 기록은 여전히 한문이 담당하고 있었다. 수많은 한적들을 통해 교양을 습득하고 학문을 하였듯이 자신의 생각을 한문으로 남기는 것 또한 동시대 지식인에게 있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엔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남김에 있어 의식적으로 한문이 아닌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한 개인이 역사를 회고함에 있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지엔이 일본어, 즉 가나 문자를 사용하여 역사를 반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지엔은 섭관가문 출신의 천태좌주를 세 번

19) 텍스트, p.42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나 지낸 불교계 거물이다. 그의 출신과 직위를 통해 그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났을지, 특히 한문에 능통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적인 기록은 물론 일기까지도 한문으로 남겼던 시대에 지엔은 왜 자국 문자인 가나로 일본 역사를 기록했던 것일까?

> 이런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처럼 가나(仮名) 문자로 희언(戯言)을 써 두면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생들도 마음속으로는 알기 쉬워 혼자 빙그레 웃으며 지식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전거(典據)가 되는 문장을 열심히 인용하며 학문한 티를 내고자 하는 이에게 이 책은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몸은 정말이지 세상 이치를 조금도 모르지만 나를 기준으로 타인을 가늠해 보건데, 사물의 도리를 분별하는 글은 이와 같은 문체로 써야 조금이라도 후대에 남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이 글을 쓴 것이다. 이 글은 가나로 썼으며 내용도 다소 우스꽝스럽고 이해하기 쉽지만 함의하고 있는 뜻은 심오하다. 그 심오한 뜻을 재미있고 경박한 희언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바른 도리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20]

『구칸쇼』 일본어 집필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인용문을 통해 지엔이 의도적으로 가나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엔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나로 『구칸쇼』를 썼다. 가나를 통해 지엔이 의도한 것은 알기 쉬움이었다. 즉 책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빙그레 웃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원전을 읽고 인용하며 열심히 아는 척하는 자세와 대비된다. 현학적인 자세로 전거를 인용하는 이들에게 『구칸쇼』는 무용지물이다. 사물의 도리를 분별하는 글은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바른 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한문 대신 가나로 썼다는 것이다. 자국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와 같은 전달성에 있다. 뜻하는 바를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모국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제아무리 심오한 뜻을 담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지엔은 이 점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지엔의 『구칸쇼』 저술 목적은 말세인 지금 세상에 바른 도리를 깨우쳐 주는

20) 텍스트, pp.423-42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데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한문이 아닌 전달성이 높은 가나를 사용하였다. 앞서 거론된 필독서를 읽고 그 이치를 깨달은 지식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한문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엔의 생각이다.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온 도리와 앞으로 펼쳐질 도리, 역사를 통해 변하지 않는 도리와 시시때때로 변하는 도리 등 역사성찰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도리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역사의 방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국어의 전달력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 이 책에는 상당히 가벼운 말들이 많다. 예를 들면 탁, 꽉, 쓱, 착, 퍽과 같은 표현을 많이 쓴 것은 일본국 말의 참 모습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자의 훈은 그 글자의 의미를 좇아 해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미의 외연이 넓어지지 않는다. 한자로 나타냈을 때 별반 뛰어나지 않아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 말이야말로 일본국 말의 진가를 보여 줄 것이다. 그 까닭은 일본국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 만사를 언술해감에 있어 당대의 정황을 명료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21]

본문을 통해 지엔은 가나와 한자, 가나문과 한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한자는 표의문자이며 일본어 가나는 표음 문자이다. 표의문자를 통해 일본어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역시 부사,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부분이다. 즉 없어도 의미전달에는 지장이 없지만 있으면 현장감과 일본어 특유의 느낌을 살려주고 보다 더 명료하게 의미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칸쇼』의 의성어 의태어가 적절히 사용된 임장감 넘치는 표현은 동시대사를 서술할 때 빛을 발한다. 특히 호겐의 난 이후는 지엔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혹은 사람들 사이의 소문 등, 동시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자료가 곳곳에 실려 있다. 지엔은 이와 같은 수많은 증언과 목격담을 보다 선명하고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구어 표현이 살아 숨쉬는 가나로 『구칸쇼』를 쓴 것이다.

가나 문자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것은 <희언>이라는

21) 텍스트, pp.42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용어이다. 지엔은『구칸쇼』를 역사서라고도 사론이라고도 하지 않고 <희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희언>에는 자신의 문장을 다소 낮추어 표현하는 겸손의 의미도 들어 있을 것이다.[22] 그러나 지엔이 의도적으로 <희언>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표정으로 원전 운운하는 현학적인 자세를 지닌 당대 지식인들과 자신을 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희언>은 엄숙한 표정으로『구칸쇼』를 읽던 독자로 하여금 절로 웃음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해하기 쉬우며 다소 우스꽝스러운 내용이『구칸쇼』에 담겨 있다고 지엔 스스로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구칸쇼』를 읽다보면 <희언>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이야기, 사건 당사자들의 증언은 물론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과 시정잡배들의 이야기와 만나게 된다. 호주지(法住寺) 전투 때 관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어이없이 당하는 관군의 모습을 상술하는가 하면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들 슈카쿠(守覺) 법친왕(法親王)을 야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의 역사서에서는 서술대상에서 제외되어 마땅한 것들이다. 지엔은 이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내용을 희언 형식을 통해『구칸쇼』에 써 넣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박한 희언 형식으로 썼다고 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경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지엔이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속의 도리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며 심각한 내용이다. 지엔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구칸쇼』의 서술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뜻은 심오하다. 언뜻 보면 형식과 내용이 조화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엔은 의도를 가지고 글의 내용과 문체를 확실히 구별하여『구칸쇼』를 썼다고 할 수 있다.

> 무지몽매한 이들에게 사물의 도리를 마음 깊이 가르치려고 가나 문자로 이 글을 썼으며 도리관계를 밝힘에 있어서는 이해를 위한 방편으로 진실하나만을 들었다. 여기에 쓰인 기묘한 일들은 오로지 진실 그 하나에 비추어 이해해야할 것이다.[23]

---

22)『샤세키슈(沙石集)』를 비롯한 중세 문학 작품에 <희언>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글에 대한 겸사인 동시에 불교의 광언기어(狂言綺語)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광언기어>는 불교나 유교적 입장에서 시나 모노가타리 등 문학 작품을 폄하해서 일컫는 말이다. 다만『구칸쇼』에서는 <희언>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3) 텍스트, pp.424-42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용문에서 진실에 비추어 쓴 글, 사물의 도리를 가르치는 글을 굳이 희언 형식으로, 가나로 씀으로써 전달력을 높이고자 한 지엔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지엔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학문을 게을리 하는 당시 세태를 참작하면 가나로 쓰는 것이, 희언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훨씬 흥미를 끌기에 좋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형식은『구칸쇼』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내용에 대한 자신감은 사서삼경을 비롯한 수많은 서책을 필독한 연후에야『구칸쇼』가 뜻하는 바를 진정 이해할 수 있으며 섣불리 파고들어서는『구칸쇼』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앞의 인용문과도 맥이 닿는다. 담고 있는 내용이 심오한 경우, 담는 그릇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한 것으로 골라야 한다. 그래야 전달이 잘 되며 후대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지엔의 주장이다.

## 3. 결론

『구칸쇼』이전에도 일본 역사를 총괄하는 역사서는 많이 있었다. 본고에서는『일본서기(日本書紀)』를 비롯한 정사(正史)들, 그리고『오카가미(大鏡)』를 비롯한 모노가타리(物語)풍 역사서와는 다른『구칸쇼』의 사론으로서의 특징에 천착하였다.『구칸쇼』는 육국사(六國史)처럼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에 중점을 두지 않으며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는 모노가타리 풍의 역사서도 아니다.『구칸쇼』는 지엔이라는 한 개인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어보고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리를 찾아 밝히고자 쓴 책이다. 지엔은 사색의 과정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역사관, 즉 도리사관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리사관에는 지엔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한계가 있다. 그의 한계는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형태, 즉 천황가와 섭관가의 협조, 그리고 무가의 협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섭관가 출신 장군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 지엔은 이상적인 정치의 도래를 꿈꾸었으며 아울러 고토바인의 막부 토벌의 기운을 파멸의 전조로 두려워했다. 섭관가 출신으로 천태좌주의 위치에서 섭관가를 위해 동분서주한 지엔의 일생이『구칸쇼』에 녹아 있는 것은 한계라기보다는 어쩌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지엔은 불교에 입문하여 한때는 진정한 출가를 꿈꾸었지만 집안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정치 일선에서 형 가네자네와 도와 고군분투하였다. 천태좌주를 네 번이나 역임한 고승으로서의 사상적 배경, 정치인으로서 경험한 부침,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각종 지식과 정보를 모두 가나로 쓴 희언 안에 담았다. 그는 뛰어난 한문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가 가지고 있는 전달력을 얻기 위해 가나로 『구칸쇼』를 저술한 것이다. 자신이 사색을 통해 얻은 도리를 전달하고 싶다는 절실함이 한문이 아닌 가나를 선택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上宇都ゆりほ(2004)「『愚管抄』における後白河院記述について」『説話文学研究』, pp.65-75
大隅和雄(1999)『愚管抄を読む』講談社, pp84-125
_____(2002)『信心の世界遁世者の心』中央公論新社, pp.106-126
黒田俊雄(2001)『王法と仏法』法蔵館, pp36-64
小峯和明(2007)『中世日本の予言書』岩波書店, pp1-18.
坂本太郎(1991)『日本の修史と史学』至文堂, pp.86-100
栃木孝惟(2001)『軍記と武士の世界』吉川弘文館, pp.179-206
樋口大祐(2002)「乱世の歴史叙述と笑い」『文学』岩波書店, pp.73-88
阿部謹也(1987)「いま歴史学から<中世>を見る」『国文学』学灯社、pp.12-17

❖ 투고일 : 2013.07.07.
❖ 심사완료일 : 2013.08.10
❖ 게재확정일 : 2013.08.1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